



제17호 태풍 '타파'가 내습한 22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앞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왼쪽). 태풍의 강한 바람에 꺾인 제주시 삼양동 도로변 가로등.

꺾이고 잠기고… 태풍 '타파' 곳곳 생채기

폭우·강풍 피해 신고 잇따라… 119 수백차례 출동 도로 곳곳 침수 속출… 정전으로 3300여가구 불편 하늘길 이틀째 마비 승객 2만여명 제주에 발 묶여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쏟아낸 제 17호 태풍 '타파'가 제주 곳곳에 상 흔을 남겼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 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태풍 관련 총 396회(급·배수 27건, 예방·대비 125 회, 안전조치 242건, 인명구조 2건) 의 소방 출동이 이뤄졌다.

21일 오후 5시36분쯤 제주시 조천 읍 함덕리 한 주택 마당에 빗물이 들 어 찬 것을 시작으로 도내 농경지와 도로 등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속출

하자 119가 긴급출동해 620t의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사거리 한북로 방향 일부차로 ▷부민장례식장 남측 오등동 방향 진입로 ▷방선문 계곡 출입구 등에서는 침수로 인해 도로 가 통제됐으며, 22일 오후 2시20분 쯤에는 제주시 평화로 옆 도로에서 SUV가 불어난 물에 갇히기도 했다.

이어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건물 에 설치된 태양열 판넬이 강풍에 무 너지고, 법환동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등 강풍피해 도 이어졌다.

정전 사태도 속출했다. 한국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한경면을 시작으 로 태풍이 제주섬에 가장 근접하던 시간대인 오후 4시까지 서귀포시 표 선면, 대정읍 무릉리, 화순리, 색달 동·호근동 등 3335가구에서 정전이

한전 제주본부는 긴급 복구에 나 서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842가구 의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제주 본부는 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를 투입해 나머지 2493가구를 대상 으로도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비바람 때문에 애를 먹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하늘길

은 이틀째 마비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 르면 22일 오전 6시3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 공 OZ8900편이 결항한 것을 시작으 로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주공항을 오 고 가기로 한 모든 항공편이 운항 취 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하루 제주공항에서 운항 계 획이 잡힌 항공편은 모두 489편으로 이중 오후 5시 기준으로 출발 196편 과 도착 195편 등 391편에 대한 결 항이 확정됐다. 전날에는 오후 9시부 터 결항이 시작해 33편의 운항 계획 이 취소됐다.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인 해 2만명이 넘는 승객이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아파트 6년새 3.3㎡당 604만원 ↑

올 8월 기준 1276만원대 전국 6위… 대전보다 높아

도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6년새 3.3㎡(1평)당 604만5000원 올랐다. 연간 평균 100만씩 오른 셈이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국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전수조사 가 시작된 2013년 8월 중 제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672만3000원 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다. 다음해인 2014년 8월 중 도내 아 파트 분양가는 791만4000원으로 1 년 만에 119만1000원이 뛰어올랐다. 당시 전국 평균 분양가는 839만5000 원으로 제주보다 높았다.

이후 8월 기준, 도내 아파트 분양 가는 2015년 734만3000원(전국 평 균 867만8000원), 2016년 949만 7000원(936만2000원), 2017년 1100 만6000원(1007만8000원), 2018년 1129만9000원(1114만1000원), 2019년 1276만8000원(1175만8000

원) 등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제 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국 평 균을 앞질렀다.

올해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2670만7000원)과 경기 (1433만2000원), 대구(1424만원), 인천(1300만5000원), 부산(1297만 2000원)에 이어 6위다. 대도시인 인 천·부산과 막상막하이며, 광역시와 특별시인 광주(1227만9000원), 세 종(1141만1000원), 대전(1117만 1000원)의 분양가 마저 상회한다. 제주는 2013년 전국 10위에서 올해 6위로 오른 반면, 대전은 당시 4위에 서 현재 9위로 밀렸다.

이처럼 최근 몇년 새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 련의 꿈은 멀어지고, 매매보다는 전 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 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읍·면은 물론 동지역의 미분양도 속 속 나오고 있고 최근 공매로 나오는 물량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자치경찰 심야 폭주족 단속… 4건 적발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20일 새벽 2시까 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주도로 일 대에서 심야 폭주족 단속 활동을 벌 여 난폭운전 2건, 무면허운전 1건,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1건 등 4 구간을 더 주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그동안 신시가지 일 대에서 심야 폭주족의 굉음과 과속,

지그재그 난폭운전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도민들의 민원에 따라 민원내용을 분석,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 과이다.

특히 난폭운전자(2건)의 경우 자 치경찰 정차지시에도 불응하고 3km 신호위반 3회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를 계속하는 것을 추적, 적발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조상윤기자

"험담했다" 흉기 휘두른 30대 中 불체자에 실형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런모(33)씨에게 징역 2년 6월 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자택에서 지 현장방문을 통해 재산상황, 체납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주모 자면담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금 (21)씨에게 3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족에게 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으로 주씨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부상을 입었다. 송은범기자 있기 때문이다.

세금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뿌리뽑는다

도, 은닉재산 확인되면 고발·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반년만에 체납세금 34억 징수

도내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 지방세 범칙행 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 런씨는 지난달 7월 7일 오후 7시 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소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제주도는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 및 혐의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은닉재산으로 확인 이 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 산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고 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 두, 이륜차 등을 압류 조치했다. 는 등 명의대여행위 의심자에 대해

서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 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 한 동산 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 리단은 체납액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화상담 독려, 권리분 석을 통한 압류 및 공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3억8200만원을 징수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3 또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 차례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구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시외버스터미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 소 일대는 승객 대기 중인 택시, 자 가용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 의 정류소 진입이 어렵고 승객이 탑 승한 버스가 출발할 때 또한 차선 진 입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버 버스정류소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스 탑승 불편 등에 따른 민원이 자주 집중단속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현장 파견을 통한 강력단속 추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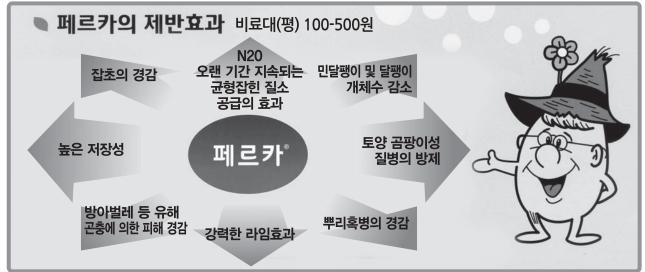
과 현장 계도를 실시해 총 22건을 적

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터미널 인근 현수막 6개소 게첨, BIS활용 등 주· 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도 홍보 중이며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제주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 제주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 속요원 현장파견을 통한 주·정차 위 해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단속과 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 함께 현장 단속요원 파견 횟수를 2배 시에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위반 로 늘렸고(총 20개조, 1일 80회), 수 시민신고제와 연계한 홍보도 한층 고대로기자

진정한 흙이 보약 "베르카칼슘베르" 120년의역사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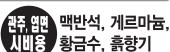




25K - 1포



취급 4종복비, 유기질비료(진완성제품), 품목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lpha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V때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마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감 자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탱이감귤유**퉁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